

마중물 독서운동을 펼쳐야 하는 이유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khhan21@hanmail.net

“독서왕 대회 프로그램은 단지 아이들에게 한 권이라도 더 책을 읽히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이것으로 인해 출판 환경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은 무슨 근거로 나온 것인지 불분명하고 또한 침소봉대의 극치입니다. 실제로 매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어린이책들의 종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많은 책들이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창고에서 묵혀 있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되도록 다양한 책들을 아이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가지 기준을 가지고 목록이 선정되었으며, 결코 출판 환경을 위축시키는 기준은 없다고 생각하며 베스트셀러나 교과서에 수록된 도서만 팔리는 쓸림 현상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와 오히려 어린이책 출판 환경을 좀 더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2013년 4월 KBS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연합해 추진하던 ‘KBS 어린이독서왕(가칭)’이 문제가 되자 이 행사에 참여한 일부 출판사가 내놓은 입장문의 일부다.

나는 그해 4월 3일에 북콘서트가 열리는 한 서점에 들렀다가 ‘KBS 어린이독서왕 선정도서’ 40권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다음 날 새벽에 흥분해서 “쓰레기 같은 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 행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때 올린 글의 제목은 「독서운동을 빙자한 ‘KBS 어린이 독서왕’이었다. 그로부터 딱 한 달 만에 이 프로그램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앞의 입장문에서는 10가지 선정기준을 내놓았지만 선정 이후에 출간된 책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아동, 청소년 책을 평상시에 펴내지 않는 몇 출판사의 책도 보였다. 이 사태를 주도했다는 자들과 친분이 있는 출판사들의 책이었다. 그야말로 졸속으로 추진되던 행사였고 그들이 제시한 선정기준은 문제가 되자 나중에 대강 껴맞춘 명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나마 사태가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은 심각성을 인식한 언론들의 보도와 독서운동을 벌이던 시민단체와 교사들의 헌신적 노력 때문이었다. 운동가들이 발 빠르게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열정적으로 이 행사가 전개되는 것을 막았다. 그때 온라인서점과 대형서점들은 책의 질과 사태의 심각성은 제쳐놓고 무조건 책을 많이 팔아먹기 위한 경쟁을 벌였다. 참여 출판사들은 온라인서점에 45%로 공급하면서 ‘예상문제집’이라고 선전했다. 이처럼 책을 쓰레기로 만들면서까지 열심히 달려들었다. 덕분에 초창기에는 책이 좀 팔려나갔지만 프로그램 추진이 중단되는 바람에 반품으로 손해만 입었다.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나는 해당 출판사들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물론 진정성 있는 몇 출판사로부터는 자신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자각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도서관 사서들로부터는 도서관을 살리는 데 노력해줘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다. 지금 한국의 도서관 관장은 행정직이 대부분이다. 그야말로 시험을 잘 봐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 시험을 보고 상을 주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 ‘KBS 어린이독서왕’이 상업적 성공을 이루면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도서관의 이벤트를 마무리 지을 것이 뻔했다. 그럼 도서관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사라질 것이고, 도서관의 존재이유가 크게 퇴색했을 것이라고 사서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

출판이 중심이 된 독서 운동은 없었다

출판사들이 KBS와 교육청의 공신력을 이용해 벌인 ‘KBS 어린이독서왕’은 2002년에 벌어진 MBC ‘느낌표 추천도서’의 성공을 염두에 둔 이벤트였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당시 출판 역사상 최대의 이벤트라 할 수 있는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가 출판계를 강타했다. 이 프로그램에 소개된 책들 중에서 10여 종 이상이 밀리언셀러의 반열에 올랐다. 주로 부모 세대들에게는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게 하고 자식 세대들에게는 부모가 살았던 어려운 시절을 이해하게 만든 성장소설 위주로 선정된 <느낌표> 선정도서들은 결코 책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책들이 때마침 세를 넓혀가던 온라인서점의 마케팅과 결합되면서 출판시장에 던진 파장은 엄청났으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찬반논란은 뜨거웠다.

당시 한 출판인은 “책을 다루는 방식이 생산자, 전문가, 마니아 중심이었다는 점, 국내서를 소개했다는 점, 기존의 책 소개 프로그램들이 책의 가치를 알리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느낌표>는 구매력을 높이는 것에 두었다는 것” 등의 몇 가지 긍정성을 제시한 이후에 “선정의 주체와 이유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선정의 투명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사실, 한 권의 책만을 장기적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한 권의 책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읽게 해서 책 시장을 넓혀보겠다는 군국주의적이고 문화적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는 운동이라는 점, <느낌표> 브랜드가 아니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들어갈 수 없게 됨에 따라 출판의 역동성을 잃게 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문제도 크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 반해 한 도서평론가는 “<느낌표>가 초기에 일부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프로그램의 기본목적인 독서운동의 기폭제가 되도록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제작진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책이 대단하게 팔린다는 현상만을 놓고 일부 비판자들이 <느낌표>가 엽기적·후진적인 현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느낌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솔직히 나는 당시 도서평론가의 손을 들어준 편이었다. 그러나 이후 벌어진 양상이 출판사 대표의 지적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고 많이 반성했다. 이후 한 저널리스트의 “공익의 외피를 쓴 <느낌표> 같은 오락 프로그램들이 국민독서운동을 위한 공익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기에 “<느낌표> 제작진은 출판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출판사, 저자, 독자라는 점을 깨닫고 자신들이 출판의 중심이라는 착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나 한 출판평론가의 “어느 날 갑자기 이 프로그램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날 이후’가 더 문제”라는 충고를 아프게 되새김질해야만 했다.

실제로 이후 출판의 역동성은 크게 위축됐다. 문제는 그 이후 전개된 독서운동이라는 것도 대체로 이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2012~2016년)에서 “국민의 도서 수요 증대 지원” 명목으로 펼친 사업은 도서관구입비에 대한 세제 혜택 추진(실적 없음), 청소년 대상 북토크 제도 신설 추진(13~16년, 총 2300백만 원), 도서관의 도서관구입비 확충으로 이용자 서비스 강화(실제 진행상황 없음), 책 나눔 센터(가칭) 설립·운영(13~16년, 총 2300백만 원), 세종도서(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에 보급(12~15년 보급 권수 147만 9059권),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12~16년, 211백만 원), 책읽어주는 문화봉사단(14~16년, 600백만 원), 문화복지 책

나눔 북콘서트 개최(14~16년, 460백만 원), 다양한 TV 책읽기 프로그램 제작·지원, 언론매체 활용 책읽기 홍보(13~16년, 1040백만 원), 책 정보 제공 우수 매체 선정·표창 등이 전부다.

출판단체가 자체적으로 벌이는 독서진흥 사업도 거의 없다. 나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매달 한 번씩 벌이는 북콘서트가 거의 유일하다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출판인들은 책을 읽지 않는 국민들을 비판하면서도 독자를 창출하려는 근본적인 운동을 벌이지 않았다. 심지어 출판계를 리드하면서 독서문화를 목청껏 부르짖는 이들마저 모든 일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왜곡하기에 급급했다.

이러는 가운데 올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조직 개편을 통해 독서진흥본부를 신설했다. 전담부서가 본부 단위로 승격했으니 이제 독서진흥이 제대로 이뤄질까. 나는 이미 문화부 관료나 진흥원 간부들에게 오히려 독서진흥과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2017~2021'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계획에 포함된 독서진흥 정책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 것이다. 진흥원은 거의 모든 조직원이 닭모이나 새우깡을 나눠주는 재미로 산다. 독서진흥본부가 생겼다 해도 알량한 예산으로 잡화점의 물건처럼 나열된 사업들에 사이버 독서운동가들을 투입해 국민들의 바람직한 독서를 해치는 일들을 열심히 벌일 것이 뻔하다. 아마도 책이나 독서라고 하면 무조건 접어주는 분위기에 편승할 것이다.

비독자를 독자로 만들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따라서 나는 출판계가 살려면 출판계 스스로 독자를 창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그 운동은 어떻게 벌여야 할까. 그간 우리 독서운동은 상위 10%를 대상으로 한 엘리트 독서운동에 주력해왔다. 책을 잘 읽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책 읽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우려 했다. 그러나 상위 10%는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책을 잘 읽는다. 상위 10% 바로 아래의 독자들은 무엇을 읽어야 할지를 잘 몰라 헤맨다. 그들을 위해 책을 골라주는 일은 어느 정도 성숙했다.

문제는 초중고생 중에서 책을 전혀 읽지 않거나(비독자), 어쩌다 읽는 아이들(간헐적 독자)을 독자로 전환시켜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들을 독자로 만들지 않으면 개인이나 국가, 출판의 미래는 모두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지금 아이들이 읽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어쩌면 게걸스럽게 읽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손 안의 컴퓨터로 쉽게 정답을 찾으며 열심히 읽는다. 단문과 이미지(만화, 그림, 사진 등)가 결합된 책도 즐겨 읽는다. 그러나 그런 읽기로는 한계가 많다.

정보가 폭발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인간에게는 단순한 정보의 습득 수준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들을 연결해 새로운 개념을 도출할 능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식을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기존 지식과 결합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 즉 편집력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 역량은 어떻게 키워질까. 어려서부터 완성된 글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접할 수 있다. 그때 만나는 생각의 차이가 바로 상상력이다. 그런 상상력을 글로 써 낼 수 있어야 한다. 그 글은 결국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된다.

이런 읽기는 학교 수업시간에 벌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여전히 교과서에 담긴 지식을 암기하기에 급급하다. 중고등학교마저 대학을 가기 위한 정거장으로 전락해 있다. 이런 현실을 하루빨리 개

선택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 초창기에 교육부는 바람직한 교과서의 상을 “인류문화의 정수를 모아놓은 표준지식”에서 “다양한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더 깊은 지식습득의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로 바꾸겠다는 정책을 입안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교과서에 대한 생각이 역주행하는 바람에 시대에 맞는 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뜻이 있는 모든 출판사가 자유롭게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교양서를 발행하고 교사들은 그런 교양서를 자유롭게 골라 적절한 수업을 통해 어느 자리에서나 세상을 이겨낼 역량을 갖춘 아이들로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지식사회에 제대로 적응하는 것이다. 나는 이를 이미 ‘마중물 독서’라 이름 짓고 출판사뿐만 아니라 도서관, 학교, 마을, 시민사회 등 책 생태계 전체가 연대해서 열심히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미 학령인구(6~21세)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통계에 따르면 1995년에 1191.8만 명이던 학령인구는 2005년에 1057.5만 명으로 줄었다가 2015년에 872.8만 명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감소한 학령인구가 10년 단위로 134.3만 명에서 184.7명으로 늘어났다. 2025년에는 학령인구가 654.3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부터 10년 동안 218.5만 명이 또 줄어든다. 연평균으로 21.85만 명이다. 30년 만에 학령인구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준다는 것은 출판시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그러니 우리가 50%가 넘는 중고생 비독자를 독자로 만들지 못하면 출판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마중물 독서’ 운동에 출판의 사활을 걸어야만 할 운명이다.